

윌링스, 100MW 규모 새만금 육상용 태양광 3 구역 사업 공급계약

- ▶ 새만금 육상용 태양광 3 구역 전체 규모 태양광 인버터 수주
- ▶ 태양광에너지 리딩기업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

<2021-04-29> 태양광에너지 리딩기업 윌링스(313760, 대표이사 안강순)가 새만금 육상용 태양광 3 구역 사업의 태양광 인버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육상용 태양광3 구역 수주는 1구역 사업 수주에 이은 것이며, 2구역 수주는 진행 중이라고 윌링스는 전했다.

이번 계약으로 윌링스는 호반건설에 100MW 규모 태양광 인버터를 납품할 예정이다. 새만금 육상용 태양광 3 구역 사업은 100MW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로, 윌링스는 3 구역 사업 전체 규모에 해당하는 태양광 인버터를 납품하는 것이다.

새만금 육상용 태양광 사업에는 SL-GH 시리즈 DC 1500V 용 태양광 인버터가 공급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SL-GH 시리즈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 설계에 용이하도록 1MW, 2MW, 2.6MW, 3MW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윌링스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적시 공급을 위해 군산시에 제 2 공장을 세워 이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으며, 5월부터 수주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윌링스 안강순 대표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재 조달을 인근 지역 업체에서 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의 대다수를 인근 지역 인재로 고용하고 있다”라며 “환경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태양광 에너지 기업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